소의 질탈처치 예

김 재 권
음성가축병원

1. 원 인

1) 골반인대와 주변조직의 이완 및 항문과 질의 괄약근을 이완시키는 Estrogen 이 다량 분비되는 분만 2～3개월 전에 다발한다 함.

2) 임신 후반기의 운동부족과 후구가 낮아지는 외양의 경사 등등

2. 환축의 상태

○한우 2세 체중 300kg 영양 및 발육상태가 불량한 8개월 정도의 조임우임.

○질 및 자궁경, 방광의 탈출과 직장탈 수반.

○질점막의 상태로 추정하여 최초 질탈이 있음.

○5월 12일 시장에서 구입한 소임.

3. 경 과

5월13일·12일 오후 8시부터 분만징후를 나타내면서 뒤에 고깃덩이가 밀려 나왔다는 축주로 부터의 상황설명과 왕진요청이 있었음.

처치 : 1) 설탕을 도포하여 용량을 줄였음.
2) ROMPUN 2cc 1M 세척정복
3) 맥주병을 끓여 질내에 삽입하여 병목에 천을 대어 비닐끈의 압정대를 연결고정하여 외음부를 하방에서 부터 2cm간격으로 봉합하고 뒤를 벗짚으로 높여주도록 축주에게 지시하였음.

5월 14일

새벽 2시에 압정대의 이완과 심한 노책으로 진 결찰부위가 씻어지면서 재탈출되었

음. 축주에게 태아의 발이 질강내까지 밀고 나와 어려운 상태이니 절박도살 처리하거나 새끼를 포기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 어미소를 살리는 방법중 한가지를 택하기를 권장설득하여 제왕절개수술하기로 결정.

처방 : ROMPUN 3^{cc} 1M 추가 1^{cc} 1M

Lido Caine 40^{cc} Local Anesthesia

수술순서에 의해 절개수술을 마치고 Saline 1000^{cc}에 P·P 400 1병을 희석하여 세척후 정복하고 전날 외음부의 앏은 봉합이 노책을 견디지 못하여 탈출된 것은 경험으로 이번엔 음순에서 8 cm 가량 외측의 단단한 피부를 세군데 Silk로 와옥결찰 봉합하였음.

처방 : Progesterone 600mg 1M

5월16일

○축주로부터 배뇨곤란이 있다는 면밀한 관찰보고를 받고 뇨도에 링겔 Set를 이용하여 배뇨를 시키고 Set를 계속하여 삽입된 상태로 두었음.

○음순와옥봉합 2군데 발사했음.

5월17일

Set가 16일 자연탈출되었으며 약간의 고통속에서도 다량의 배뇨가 있었으며 음순와옥봉합 1군데 마저 발사했음.

○변비로 인하여 배변시 약간 노출이 되었지만 다시 원위치 되었음.

5월20일

처방 : Progesterone 400mg 1M

5월21일

○우측 겸부 절개선의 발사, 정상으로 회복되어 축주와 웃으면서 작별

결 론

경제적인 동물이라서 절개수술까지 축주로 부터 승락을 얻어내기 까지 손익관계와 생명에 대한 존엄성, 동물에 대한 사랑을 강요(?)해야만 했다.

제왕절개수술보다 음문폐쇄수술을 실시하였으면 새끼까지 건질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아직도 머리속을 맴돈다.

선예(임신 276일, 새끼도 양호했음) 에서는 배뇨에 별이상이 없어서 관심밖이었는데 방광의 동반탈출도 뇨도압박 내지는 팽만된 방광무력으로 배뇨에 곤란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경우의 특징이었으며 주인의 면밀한 관찰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됨, 음문봉합시 Silk보다는 넓은 제대 Tape가 이용될 수 있었으면 노책을 견디기가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압정대를 했을 경우 소의 굴신작용에 의하여 줄이 이완되므로 압정대로서의 효력은 바로 상실되었음.

팬티형태의 엉덩이를 커버할 수 있는 압정대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와같은 경우가 다시 온다면 최후수단으로 제왕절개수술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음문폐쇄술을 실시하여 새끼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미숙한 표현이나마 진료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랜이다.